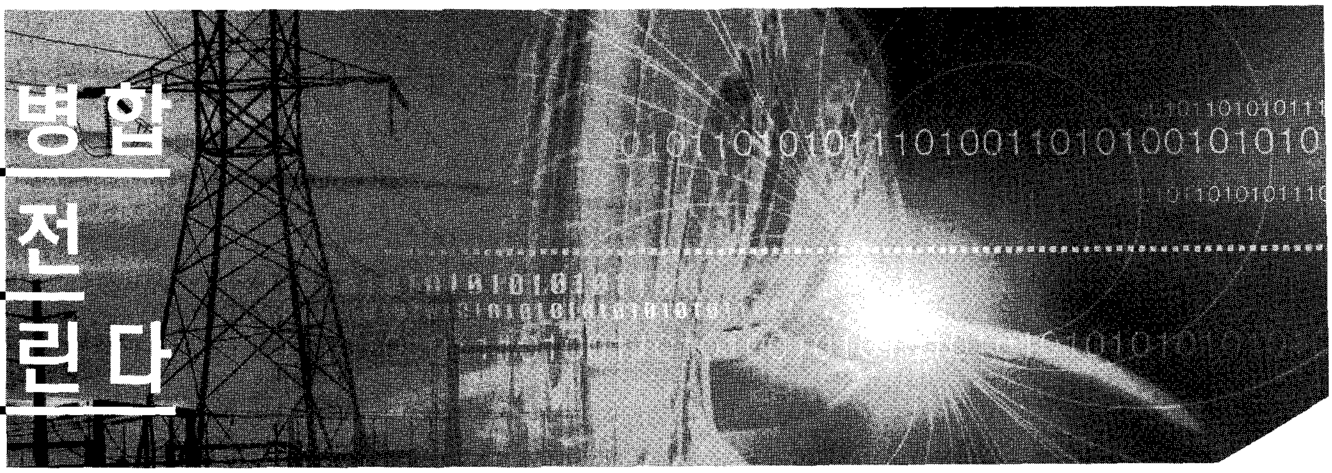
열병합 발전 늘린다



2013년 270만kW 보급…연 8천억 절감
발전용량 총전력의 3.5%까지 확대

소형 열병합발전 활성화, 기본계획 내년중에 확정

정부는 소형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을 오는 2013년 국내 전체 전력의 3.5%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.

소형열병합발전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이 75~90%로 발전전용(35~40%)보다 월등히 커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.

산자부는 최근 에너지이용효율 제고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을 현재 0.2% 수준(11만㎾)에서 오는 2013년에는 총 발전용량의 3.5%인 270만㎾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.

산자부는 올해 11만6천㎾를 시작으로 2005년에 13만5천㎾, 2007년 29만3천㎾, 2009년 62만3천㎾, 2011년에는 130만7천㎾, 2013년 270만㎾까지 발전량을 증대시킬 경우 이후에는 연간 8천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소형열병합발전을 270만㎾까지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.

산자부는 내년 2~3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으며,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설치자금을 융자지원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또 여름철에는 소형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을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주는 한편 소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소형열병합발전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
선진국의 경우 유럽연합은 소형열병합발전이 지난 2001년 총 발전용량의 9%를, 미국은 2000년 7%를 보급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.

산자부 관계자는 "소형열병합발전은 에너지이용효율 증대, 하절기 피크부하감소로 신규발전소 건설비용 절감, 분산형 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,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 장점이 많다"며 "소형열병합발전 보급계획을 내달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"이라고 말했다.

| 전기저널 편집실 |